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김 범 훈*

- I. 서론
- II.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와 주요 문제점
- III. 제주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
- IV.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 V. 결론

국문요약

제주관광은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는 기존의 대중관광 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에 부응하면서 기존의 대중관광이 야기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념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관광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지오투어리즘을 논의하였다.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 즉,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을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지질자원이라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해설과 감상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자연보전 마인드가 길러진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지리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의 방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향성으로 소규모 관광개발방식으로서의 전환, 적정규모의 관광객 수용력 지향, 지형 및 지질자원의 질적인 해설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주에서 실천 가능한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의 모델로서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서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오투어리즘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지속가능한 관광,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오투어리즘

I. 서론

제주관광은 관광객 1,000만 명이라는 메가 투어리즘(mega tourism)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의 23.6%(2002~2011년 GRDP 연평균 비중)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앞으로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수록 제주관광의 가장 큰 경쟁력 요인인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개발 압력도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¹⁾으로서, 국제적으로 빼어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화산섬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제주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지닌 향토문화와 관광객들에 의한 외래문화 간에 문화접면이 일어나면서 제주의 정체성 역시 갈수록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서 그에 맞는 제주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 품질관리가 더 없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제주관광산업은 도로와 교통과 같은 각종 인프라 개선 등

1) 화산섬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을 받은 사실을 일컫는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성장의 커다란 동인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 사업에서의 도민 배제와 파생 수익 도외 유출, 이로써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비용,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심지어 정체성의 혼란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관광은 도민과 지역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왔던 점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 제주사회에는 기존의 대규모적이고 행락적인 대중관광(mass tourism) 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반면, 관광에서의 소비자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촉구되면서,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띠어왔다.²⁾

이에 기존의 대중관광이 야기한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태관광(eco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연성관광(soft tourism), 녹색관광(green tourism),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서로 다른 형태의 관광은 결국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관광은 주류관광인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으로서 환경 친화적이며 문화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는 자연과 문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시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³⁾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안관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태관광의 관광지 환경조차 기존 대중관광의 관광지 환경과 다름없이 파괴되고 있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도 미미한 실정이다.⁴⁾ 생태관광 수요와 관광객

2) 오정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생태 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63쪽.

3) 강미희·박찬우·이영주·김성일, 『제주도를 방문한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여행 특성』, 『한국임학회지』 95(6), 2006, 759-767쪽.

4) 2000년대 초반 제주도 내 모 여행사는 기존의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관광으로서 전문해설가를 동반하는 자연생태 탐방을 비롯하여 문화민속, 역사, 4·3 기행 등 주제가 있는 생태관광 행사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해설가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여행사들의 덩핑경쟁 등에 밀리면서 자금난으로 최근 문을 닫았다. 당시 전문해설가는 주로 제주도내 대학교수와 중고교 교사들인 관계로 주간보다는 점차 야간 해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면서 관광객들도 시간적 불편을 겪었다.

기호의 다변화로 인해 제주도 전역이 관광지화 되는 데 따른 관광지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영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이상적인 관광으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이 등장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새로운 관광유형으로서 학계의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⁵⁾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제주관광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서 지오투어리즘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우선 제주관광의 추이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주관광의 부정적 담론 형성 사례들을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주요 수범사례로부터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으로의 지오투어리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참여관찰의 미비 등으로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5) 관련된 문헌들이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문과 저서 등 3가지만 소개한다. 김범훈,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2013, 476-493쪽; Dowling, R, K·Newsome, D., “The future of geotourism : where to from here”,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s), *Geotourism-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2010, pp.231-244; Mamoon Allan, *Geotourism-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Motivation For A Geotourism Experience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rmany, 2012, pp.18-24.

II.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와 주요 문제점

1. 제주관광의 변화 추이

먼저 제주방문 관광객 수의 증가추이를 보면, 1960년대 후반 제주관광이 본격 시작된 이래로 1983년에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처음 열었다. 이후 <표 1>과 <그림 1>에서 보듯이 2005년 500만 명, 2010년 700만 명, 2011년 800만 명을 넘어 2012년(969만 명)에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는 등 최근 3년간만 하여도 연 평균 13%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⁶⁾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관광객 4만 명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오는 12월까지 제주도가 목표하는 입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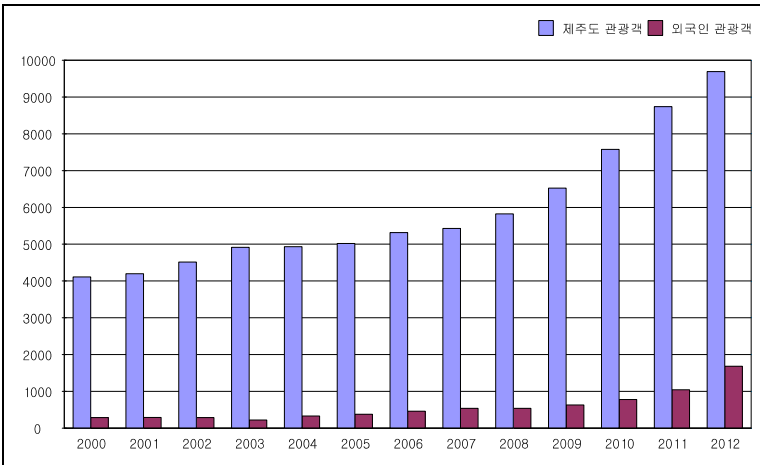
<표 1> 2000년 이후 제주도 관광객 현황(단위 : 천 명)

연도	제주도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대비 증가율	개별관광	단체관광	소계	
2000	4,111		2,643	1,179	3,823	288
2001	4,198	2.1%	2,700	1,208	3,906	290
2002	4,515	7.6%	2,996	1,230	4,226	289
2003	4,913	8.8%	3,071	1,622	4,692	221
2004	4,933	0.4%	2,950	1,653	4,603	329
2005	5,020	1.8%	2,949	1,692	4,642	379
2006	5,313	5.8%	3,221	1,631	4,853	460
2007	5,429	2.2%	3,369	1,519	4,888	541
2008	5,822	7.2%	3,537	1,744	5,282	541
2009	6,524	12.1%	4,154	1,737	5,892	632
2010	7,578	16.2%	4,955	1,846	6,801	777
2011	8,740	15.3%	6,238	1,457	7,695	1,045
2012	9,691	10.9%	6,600	1,409	8,010	1,681

자료: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hijeju.or.kr>)

6)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hijeju.or.kr).

7) 제주일보 2013년 8월 4일자.



자료: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hijeju.or.kr>)

<그림 1> 2000년 이후 제주도 관광객 증가 추이(단위: 천 명)

이런 가운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 77만 7,000명, 2011년 104만 5,000명, 2012년 168만 1,000명으로 연평균 48%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관광객은 단연 중국인으로 2011년 57만 명, 2012년 108만 4,000명(제주 방문 외국인의 64.5%)으로 불과 1년 사이에 90%의 폭증세를 보였다.

내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형태는 <표 1>에서 나타났듯이 개별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2년의 경우 개별관광객은 전체 내국인 관광객 가운데 8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단체 및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은 그 비중이 17.6%에 머무르면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다.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형태는 패키지여행⁸⁾이 50% 이상(전체의 51.9%, 중국인의 경우 77.2%)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여행 31.1%, 에어텔(airtel)⁹⁾ 16.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8) 패키지여행은 여행업자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이다. 미리 정해진 관광일정에 따라 각종 교통편과 숙박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용과 그 비용 따위를 일괄하여 여행사에서 관장하는데, ‘한 묶음 여행’으로도 불린다(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

9) 에어텔은 항공권과 호텔숙박 만을 예약하는 것으로, 소위 해외출장의 배낭여행이라 할 수 있다. 에어텔은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상품이다.

관광목적별 입도 추이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휴양 및 관람(전체의 60.5%. 2012년 기준)과 레저 스포츠(17.0%)의 점유율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 탐방, 올레길 걷기 등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규모로 이뤄지던 단체 관광객들의 행락관광은 퇴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목적도 휴가 및 순수여행 비중이 78.8%로 가장 높아 자연 경관을 선호하는 내국인들의 관광 패턴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표 2> 내국인 관광객 목적별 입도 현황(단위: 천 명)

목적별	2011년		2012년		2011년 대비 관광객 증감률
	관광객 수	점유율	관광객 수	점유율	
휴양 및 관람	4,445	57.8%	4,844	60.5%	9.0%
레저 스포츠	1,386	18.0%	1,359	17.0%	-2.0%
회의 및 업무	919	11.9%	911	11.4%	-0.8%
교육 여행	603	7.8%	558	7.0%	-7.5%
친지 방문	248	3.2%	247	3.1%	-0.5%
기타 방문	93	1.2%	89	1.1%	-3.9%
합계	7,695	100%	8,010	100%	4.1%

자료: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hijeju.or.kr>)

2. 제주관광의 주요 문제점

우선 관광개발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은 지역적 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인 제주시권역(옛 제주시 동지역)과 남쪽인 서귀포시권역(옛 서귀포시 동지역과 중문관광단지)은 관광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동부와 서부권역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골프장 건설과 일부 대규모 휴양형 리조트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광개발이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관광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갈등의 소지가 크다.

관광유형 측면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태관광에서조차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탐방객들이 특정 탐방로에 집중되면서 식생과 토양이 파괴되는 답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답압에 의한 환경영향인 ‘지표식생 파괴→표토 유실→심층토양 유실→기반암 노출→식생 및 토양침식’이라는 악순환¹⁰⁾이 제주도내 자연관광지 전역으로 확산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관광안내 측면의 경우, 무자격 가이드 채용에 의한 부실관광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최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에 의한 저가관광은 제주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의한 저가 송객→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끼리의 과도한 경쟁→무자격 가이드 채용→과도한 쇼핑센터 방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는 쇼핑 수수료(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 관광객 수용태세(숙박, 음식, 쇼핑, 해설 등)에 대한 불만, 지역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¹¹⁾ 이와 관련 중국은 10월부터 자국민 국외여행의 권익 보호와 질을 높이고 여행자원의 합리적 이용이란 명목을 내걸어 새로운 여행법인 여유법¹²⁾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도내 관광업계는 무자격 중국인 가이드 및 저가관광의 퇴출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관광소비 측면의 경우, 제주를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1인

10) 공우석, 『한국의 자연지리-생물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243쪽.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12) 중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국민의 국외여행을 일정 부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법인 여유법을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여유법의 핵심은 덤핑관광 금지, 강압적 쇼핑유도 및 옵션관광 금지, 질 낮은 관광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금지로 요약된다. 중국 현지의 여행업계에서는 해외여행 패키지상품과 관련하여 30~50%의 가격 상승 요인을 가져오고, 패키지 단체관광은 40~6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방문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동일·정지형, 『중국의 여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167, 2013, 1-7쪽).

당 소비 지출액이 해외의 경쟁도시들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점 역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44만 원 대로서 미국 하와이(182만 원)와 대만(181만 원)의 25% 수준, 일본 오키나와(93만 원)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Ⅲ. 제주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

1.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광

1)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은 관광분야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반 고래 등 어업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지속가능한 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이라는 개념이 공식화 되면서부터이다.¹⁴⁾ 이후 지구차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에 관한 세계적인 첫 번째 모임인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 UNCHE)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에 제출된 브룬

13)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2013. 5. 3.)에서 기조강연(김철원,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전략 모색』, 17쪽)과 주제발표(고계성,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와 전략』, 74쪽) 자료. 이와 관련 김철원은 “2007년 관광객 750만 명의 하와이는 관광객 1,000만 명 명목상의 유치 목표를 버리고 신혼부부와 국제회의 참가자 유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14) 김대관·김동렬,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광의 역사적 흐름』,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일신사, 2001, 36쪽.

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 제창함으로써 이의 개념 정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¹⁵⁾¹⁶⁾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Rio Declaration)과 의제21(Agenda 21)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제시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할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¹⁷⁾¹⁸⁾ 21세기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 자원개발, 산림, 농업, 어업, 공업, 제조업, 관광 등 현대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개발규범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⁹⁾²⁰⁾

2)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은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관광형태가 아니다. 기존의 대중관광의 문제점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대안적인 노력에서 진화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
- 15) WTO,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Guide for Local Planners*, Madrid, Spain : WTO, 1993.
- 16) Hall, C, Michael·Alan A, Lew, “The Geography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in C, Michael Hall and Alan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1998.
- 17) 오상훈·강성일, 『제주지역 펜션사업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과 수용』, 『관광학연구』 29(1), 2005, 191-208쪽.
- 18) 이희연·차승훈,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의 적용과 평가 시스템 구축』, 『2004년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441-450쪽.
- 19) 강미희,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및 성공모델』, 『2007년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UNWTO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제회의 자료집』, 2007, 799-811쪽.
- 20) 변형석, 『지속가능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 『한국관광정책』 41, 2010, 34-41쪽.

1960년대부터 시작된 관광분야에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1980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 WTO) 총회에서 환경보전조항을 포함한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on Tourism)이 채택되면서 높아지게 되었다. 이 선언을 통해 관광과 환경,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인류의 유산인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 보존에 대한 구체화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관광은 성장산업이며 커다란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 관광은 여러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 관광은 스스로 독특한 자연 자원·문화유산·아름다운 경관 등에 의존한다는 점, 관광은 자연환경과 관광지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²¹⁾

세계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²²⁾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존,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명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관광이다.

이는 지역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편익을 극대화하고, 관광지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관광이 바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시각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둘째는 관광객(또는 방문자)에게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셋째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공히 환경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목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21) Wight, P., "Tool for sustainable analysis in planning and managing tourism and recreation in the destination", in C.M. Hall·A.A. Lews(eds), *Sustainable Tourism of a Geographical Perspective*, Prentice Hall, 1998, pp.75-91.

22) WTO, 앞의 자료, 1993.

이란 세 가지 축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은 시설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우수한 해설가 등 전문가 양성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²³⁾

지속가능한 관광은 기존 대중관광의 대체가 아니라 이들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 사회, 관광사업자, 관광객, NGO 등)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재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

2. 제주관광의 부정적 사례와 지속가능성 모색

1)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개발의 효과가 역내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광개발 방식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발철학과 전략이 관광개발에 반영될 때 경제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은 이러한 철학과 전략에 배치되고 있다. 무엇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제주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제주도의 국제해양관광 거점 육성 차원에서 1977년 서귀포시 성산포 섬지코지 일원 417만7,000㎡에 지정되었다. 이후 경제난 등으로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으나, 2003년 사업자 국제공모를 통해 국내기업인 (주)보광과 휘닉스개발투자(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주)보광은 대규모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당초 예정한 해중 전망대 등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보다 숙박시설 건립 등을 우선함으로써

23) 최영국,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 223, 2000, 6-19쪽.

24) Butler,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C, Michael Hall·Alan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1998, pp.25-34.

제주 천혜의 해안절경지로 손꼽히는 섭지코지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제주도민 고용 실적도 2012년 11월 현재 당초 계획(882명)의 27%(239명)에 불과 하는 등 지역경제 기여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또한 (주)보광은 사들인 공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 지구 내 미개발 토지를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넘김으로써 이른바 ‘땅장사’ 논란²⁶⁾을 불러일으켜 지역사회에 비관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2012년 10월 굴삭기를 동원하여 철거된 TV드라마 ‘태왕사신기’대형 세트장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부정적 사례이다. 이 세트장은 제작사 (주)청암영상테마파크가 2005년부터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지 일대 20만 8,000㎡ 부지에 한류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중심 인프라에 해당된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대규모 한류관광단지 투자유치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²⁷⁾ 그러나 투자자인 제작사는 드라마 세트장만 짓고는 다른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2년 2월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생태계보존 협력금·산지복구비·지방세 미납에다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은 채 투자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손을 털어버림으로써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꼴이 되었다.

제주지역 제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제주CC)이 지난 8월 최종 부도 처리돼 제주에서 운영 중인 나머지 27개 골프장도 연쇄 부도 우려를 낳고 있는 점, 제주시~중문관광단지를 잇는 평화로에 관광명소로서 기대를 모았던 아일랜드호텔(구 르네상스호텔)의 건축공사장이 무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자금난이었지만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에 부정적 사례들이다.

이는 제주관광개발의 효과가 역내에 정착되지 못하고,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또한 제

25) 제민일보 2013년 3월 1일자.

26) 연합뉴스 2013년 3월 18일자.

27) 제주의소리 2012년 2월 8일자.

주도에 투자된 자본이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실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제주도 당국은 투자유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자본의 건전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증을 받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사업자와 관광객,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관광자원간의 긴장과 갈등을 줄여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관광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곳곳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장시간 내재되거나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올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들어간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 논란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부터 이명박 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제주 유일의 비회원제인 중문골프장(95만 4,767㎡, 1,050억 원대), 관광센터 건물과 토지, 야외공연장, 미분양 토지(10만 6,708㎡, 450억 원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문관광단지는 1978년부터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 211만㎡(현재 총면적은 365만 2,000㎡)를 당시 실거래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3㎡당 평균 5,000~1만 원선이란 헐값에 강제 수용하였고, 현재 개발사업 추진실적도 6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²⁸⁾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범시민운동본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국책사업이라 하여 토지를 헐값에 팔며 지금까지 환경적 피해 등을 감수해온 결과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희생양이냐며 민간매각추진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의 공익적 기능의 사유화는 결국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르며 도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의 파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주민들도 비록 걸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소지를 적지 않게 안고 있다고 보아진다. 주민들로서는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지역마을 차원에서도 더 없는 영광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28) 조선일보 2012년 5월 31일자.

주어야 할 빛나는 유산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유산 정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다고 인식²⁹⁾을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들(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제주시 조천읍 선홍1리, 선홍2리, 구좌읍 김녕리, 월정리, 행원리, 덕천리 주민들)에게 정책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매우 소홀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작은 갈등이라도 발생하였을 때,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반발태도는 크게 확대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주관광의 안전사각지대 문제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7월 제주 올레길 제1코스에서 발생한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은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5년여 동안 치유와 사색의 길을 표방하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길로서 피로한 사회, 심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가던 느낌의 미학의 상징인 올레길 걷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거된 피의자가 올레길 제1코스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사는 지역주민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제1의 관광목적지로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제주사회에 제주의 고유성 상실이라는 뼈아픈 성찰의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올레는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어, 대문이 없는 제주전통의 돌담과 돌담으로 이어진 안식처로 가는 길이며, 주민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교감하는 길이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올레길에는 경찰의 자전거 순찰대와 올레지킴이가 배치되는 등 안전대책에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상과 성찰을 생명으로 하는, 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공간인 올레길을 각종 감시체계 아래 두는 것은 평화로운 제주의 고유성 상실을 부추기는 격이다. 제주 올레길의 안전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이 지역 환경의 실상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안전대책 역시 주민들에게 맡기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29) 오상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8-131쪽.

3)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 보전의 원칙하에 관광자원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극대화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등장하면서 가장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양극화를 치닫는 환경논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지정된 송악산 관광지구는 1999년 남제주리조트개발(주)이 마라해양군립공원을 포함한 사업변경을 신청하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증시하는 개발의 논리와 송악산의 보존가치를 증시하는 보존의 논리가 맞서기 시작하였다. 논란의 핵심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천혜의 해양관광지이면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이중화산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송악산의 정상 분화구 내에 호텔과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들여놓겠다는 데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개발 찬성과 환경단체 및 지질학계 중심의 개발 부당성 논리가 심화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³⁰⁾ 결국 2001년 3월 대법원이 개발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송악산 논쟁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명제를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¹⁾ 이 사업은 외자유치 무산으로 최종 마감시한까지 착공계를 내지 못함에 따라 2002년 7월 사업승인이 취소되었다.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개발계획과 함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허술한 외자유치 문제가 빚어낸 결과였다.

198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업으로 지적받은 제주도 탐동매립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의 다른 양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1986년 건설부가 탐동 앞바다 16만 5,000㎡에 상업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범양건영(주)에게 매립사업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1991년에 마무리된 탐동매립은 둥굴동굴한 먹돌 해안가 등 도심 속의

30) 권상철, 『제주도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 『자연보존』 114, 2001, 51-55쪽.

31) 황경수·고태호,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제주도 송악산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8(3), 2004, 51-72쪽.

아름다운 해변이 콘크리트에 파묻힌 해안생태계 파괴의 현장인데다, 지역해녀의 생존권 보장 문제,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이 얽히면서 제주사회에 논란과 대립,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탐동매립지 동쪽과 서쪽 앞바다를 관광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추가매립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사회에 또다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탐동 추가매립은 사업계획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갈등의 양극화라는 극단적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지역 해발 200~600m 중산간 일대에 휴양형 대규모 관광시설 추진 등 난개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이들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암묵적인 개발 저지선인 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파괴가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전략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2012년 9월 세계환경보전총회(제주 WCC) 개최에 힘입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와의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개별관광객이든, 단체관광객이든 간에 이들이 내딛는 답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역이 환경적으로 심하게 앓아가고 있는 문제 역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화산섬 제주를 상징하는 한라산의 각 탐방로에는 노면침식, 노폭확대, 뿌리노출, 암반노출과 같은 훼손³²⁾이 나타나고 있고, 오름과 올레길도 탐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답압으로 인한 노면침식 등 환경파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자연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에도 자원의 이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환경성의 가치 중심, 형평성, 미래지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의 답압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진

32) 정원옥·정평희,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 및 훼손유형』, 『국립공원 연구지』 1(4), 2010, 255-259쪽.

지하계 고민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Ⅳ.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1. 지오투어리즘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쟁점

지오투어리즘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다양하고도 뛰어난 지형 및 지질자원과 관광을 결합시킨 개념이다.³³⁾ 199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온 지오투어리즘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여가적인 관광형태와는 달리, 지형학과 지질학에다 지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³⁴⁾

지오투어리즘은 1995년 영국의 Thomas A. Hose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되었으나,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림 2>에서처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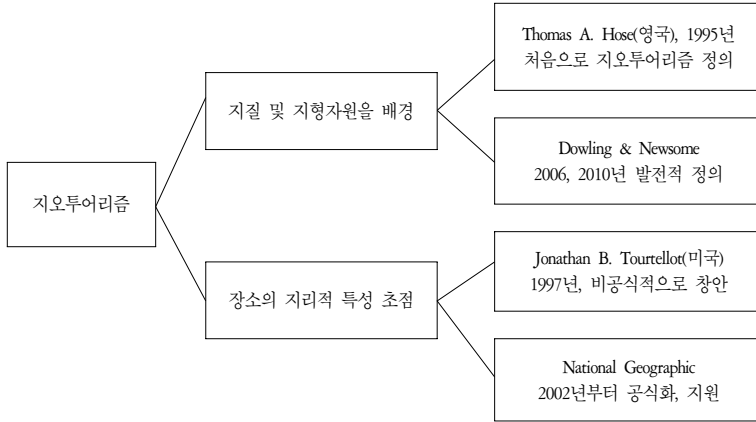
먼저, 지형 및 지질학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적 관점이다. 이 개념은 당초 Hose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정의³⁵⁾되면서 출발하였다.

지오투어리즘은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해 미적인 감상수준을 넘어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관광객들도 현장의 지질과 지형의 학문적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밝히는데 공헌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33) 전영권,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야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2005, 517-529쪽.

34) 박민영·박경,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012, 175-187쪽.

35) Hose, T,A,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s ston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May, 1995, pp.16-17.



자료: Mamoon Allan, *Geotourism-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Motivation For A Geotourism Experience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rmany, 2012, p. 23.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 지오투어리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이후 협의적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은 탐방객의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로 지형 및 지질자원과 경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자연지역 관광으로 나타나면서 지오투어리즘의 정의 또한 다음과 같이 발전적으로 다듬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⁶⁾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명소(geosite) 관광을 장려하고,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형·지질다양성 보존과 지구과학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관광으로서 지오투레일(geo-trail)과 전망 포인트(view-point), 가이드 투어(guided-tour), 지리 관련 활동(geo-activities)과 방문객센터(visitor-center)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관광이다.

여기서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은 암석 노두, 지층, 광물, 화석을 비롯하여 화성·퇴적·침식·풍화작용이나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특이한 지형·지질(화산지형, 빙하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 카르스트지형, 퇴적지형, 해안지형 포함) 등 자연적 경관은 물론 박물관이나 관광문화 유산센터 등 인공적 경관도 포함한다.

36) Dowling, R.K.·Newsome, D., op. cit, 2010.

이와는 다른 하나의 개념은 장소의 지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광의적 관점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1997년 National Geographic의 수석편집자인 Jonathan B. Tourtellot과 그의 부인 Sally Bensusen은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지오투어리즘이란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후 이 개념은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2002년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잡지와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식 소개되었다.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주민의 행복 등 지리학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광으로서 그 장소의 문화·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하는 자연여행이다.

이처럼 광의적 개념은 지역의 자연적 관광자원들을 바탕으로 인문적인 관광자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까지 제공하고 있어 다른 관광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광의적 개념의 본산격인 National Geographic은 홈페이지 상의 ‘Center for Sustainable Destinations’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³⁷⁾

그러나 광의적 개념의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의 앞머리 글자인 ‘geo’가 빠진 채여서 지오투어리즘의 본래 의미³⁸⁾가 퇴색된다는 주장³⁹⁾도 있다.

이와 관련, 지오투어리즘의 협의적 관점과 광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는 영국과 미국의 지역특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상이한 개념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영국에서는 해안가와 산악지대, 산업혁명 이후 늘어난 폐광지역과 채석장 등지에 대규모 지층노두와 암

37) National Geographic 홈페이지(www.nationalgeographic.com).

38) Dowling, R.K.·Newsome, D., “Geotourism : a Global Activity”, in Dowling, R.K. an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2010, p.1. “Whichever way it is defined or described, the ‘geo’ part in geotourism means geology and geomorphology.”

39) Ollier, C., “Problems of Geotourism and Geodiversity”, *QUAESTIONES GEOGRAPHICAE* 31(3), 2012, pp.57-61.

석노두, 퇴적기원의 암석층 등이 많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들을 관광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지형과 지질자원에 중점을 둔 협의적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특이한 지역인 엘로우스톤 국립공원,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자원관리체계와 지역공동체 소득향상 등 지리적 성격의 관광이 이루어져 온 데서 광의적 관점의 지오투어리즘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2000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⁴⁰⁾된 이후, 이들 두 관점을 융복합한 개념으로 인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질학계나 관광학계보다 지형학 등 지리학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⁴¹⁾

지오투어리즘은 기존의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생겨난 여러 유형의 관광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태관광과는 지역의 생태계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고 배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생태관광은 식물과 동물 등 생물자원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도심지를 벗어난 자연상태의 생태계를 관광목적지로 한다. 게다가 계절적 제약까지 받는다.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은 지형과 지질 등 비생물 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4계절 관광이 가능함으로써 계절적 제약에서도 벗어나 있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은 어떤 장소의 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다양한 여행경험을 포함할 수 있고, 농어촌 지역이나 해안지역 또는 산악지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심지역까지 관광목적지로 경험케 하는 등 생태관광과는 다른 차별적 특징이 다양하다.

40) 정강환,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000, 281-296쪽.

41) 김범훈, 앞의 자료, 2013.

2.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오투어리즘

해외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국내에 비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연구 가운데 ‘지속가능한 관광’을 키워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지오투어리즘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은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인공자원까지, 그리고 자연 지역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까지, 또한 교통·접근성·숙박시설과 서비스·훈련된 스태프·계획과 관리 등 관광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정부·지자체·투자자·주민·지역공동체·NGO와 대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투어리즘의 발전은 곧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Dowling & Newsome⁴²⁾은 지오투어리즘 자체가 지역 명소의 지형·지질자원에 대한 보전 의식고취와 함께 전통적인 고유한 역사·문화를 감상과 이해의 방법으로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모으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자원이 있는 곳이면 자연적 경관과 인공적 경관 모두가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해설과 안내를 통해 지형·지질자원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전 인식을 심어주며, 그럼으로써 관광객에게 만족도를 높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지오투어리즘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이상적인 대안관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arsani 등⁴³⁾은 지오파크(Geopark, 지질공원)와 지오투어리즘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현 시

42) Dowling, R.K.·Newsome, D., “Geotourism : a Global Activity”, in Dowling, R.K. and Newsome,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2010, pp.1-17.

43) Farsani, N.T.·Coelho, C.·Costa, C.·Carvalho, C.N., *Geoparks & Geotourism : new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for the 21st century*, 2012, pp.61-102.

점에서 볼 때,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마케팅에 있어 토착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은 여행자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문화적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National Geographic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무엇보다 관광목적지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을 의사의 윤리 강령처럼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본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여행자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세부 원칙들을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특기하고 있다.⁴⁴⁾

- ① 지오투어리즘은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 ② 공동체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 ③ 방문자와 주민 모두에게 전문적인 해설과 정보를 제공하여 흥미와 자부심을 갖게 한다
- ④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다
- ⑤ 장소의 순수성을 지원한다
- ⑥ 지오투어리즘은 위대한 여행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지오투어리즘 도입 역사가 10여 년 남짓한 짧은 관계로 지오투어리즘의 적용을 위한 지형 및 지질자원 발굴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다.⁴⁵⁾ 그러나 앞으로 생태계 자연자원과 지역의 지리적 탐방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을 고려할 때 자연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문자원의 내재적 가치인 고유성과 특이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 즉,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지형 및 지질자원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해설과 감상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자연보전 마인드를 길러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44) National Geographic 홈페이지(www.nationalgeographic.com).

45) 김범훈, 앞의 자료, 2013.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등을 포함하는 지리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다.

이 개념은 제주의 자연은 인문화된 자연이라는 고유성과 특이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과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주요 수범 사례와 시사점

최근 해외의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⁴⁶⁾

첫째, 지오투어리즘은 작은 규모에서도 개발할 수 있고 생태관광처럼 자연 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오투어리즘 개발 가능성은 광범위하다. 둘째는 정부, 지자체, 기업, 비영리 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셋째, 해설 방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넷째, 지오파크가 유네스코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지오투어리즘은 지오파크 활동의 핵심영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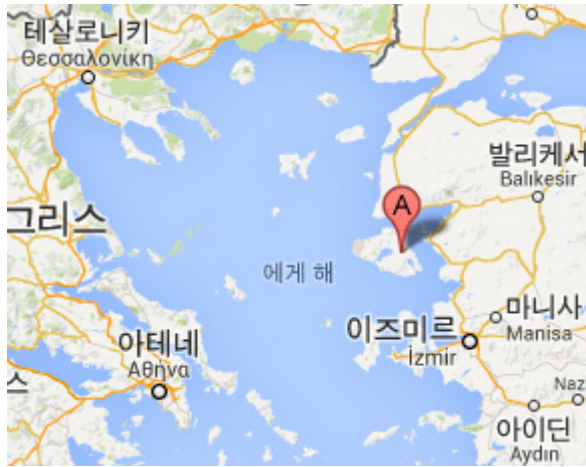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해외의 주요 지오투어리즘 수범사례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해외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주요 수범 사례

①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그리스

그리스에서 3번째로 큰 섬인 Lesvos에서의 지오투어리즘 개발은 유럽지역의 수범사례이다. 박물관 활용과 주제가 있는 가이드 걷기를 통해 일련의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 이벤트들을 매년 새롭게 편성하고 있다. 국제박물관의 날, 지구의 날, 세계환경의 날을 축하하는 주제가 있는 이벤트들도 편성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소규모 호텔,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등을

46) Dowling, R.K.,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 2011, pp.1-13.



자료: 구글 지도(<http://map.google.com>)

<그림 3> 그리스 Lesvos 섬(A지점)

통해 ‘geo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2009년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 개발을 통한 지역이익 창출 공로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European Destination of Excellence 상을 받았다.⁴⁷⁾

② Copper Coast Geopark,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지질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 그 혁신적인 개발은 geo-garden 개발이다. 이 정원은 방문객들에게 ‘Time Path’라는 지구역사와 생명 진화의 주요 단계가 묘사된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고정된 28개의 석판 패널을 이용하여 지나온 장구한 지질시간을 깨닫게 한다. 해설 패널들은 그 지방에서 발견된 암석들의 거대한 표본 옆에 위치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곳의 지오투어리즘은 아일랜드 경제에 중요한 기여자가 되고 있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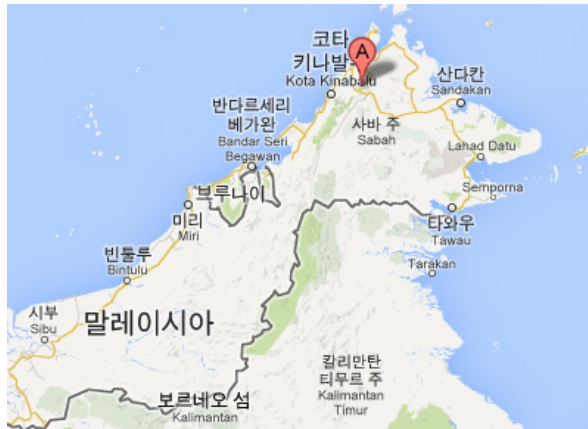
47) Nickolas C. Zouros, “Geotourism in Greece : A case study of the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in Ross Dowling·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pp.113-123.

48) Patrick Maher, “The Geology of Ireland : providing a catalyst for sustainable



자료: 구글 지도(<http://map.google.com>)

<그림 4> 아일랜드 Copper 해안(A지점)



자료: 구글 지도(<http://map.google.com>)

<그림 5> 말레이시아 Kinabalu산(A지점)

③ Mount Kinabalu, The Island of Borneo, 말레이시아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키나발루산은 4,095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tourism development”, in Ross Dowling·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pp.153-166.

높다. 뛰어난 생물 다양성과 탁월한 경관으로 인한 자연 관광이 유명하다. 키나발루산 트레일은 공원 입구에서 시작하여 산 정상에 이르는 8.5 km의 하이킹을 따라 암석의 다양성을 소개한다. 트레일은 퇴적암, 변성암, 화산암 형태를 횡단한다. 아름다운 경관은 방문객들에 의해 쉽게 인정을 받는 반면, 고유의 지형·지질 자원, 암석 노두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덮여진 채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곳 트레킹은 접근 용이한 트레일 코스개발, 훈련된 관광가이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⁴⁹⁾



<그림 6> 오만 Al Hoota 동굴(A지점)

④ Al Hoota Cave, 오만

오만의 지오투어리즘 명소인 AL Hoota Cave는 동부 아라비아에서 해설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석회동굴이다. 길이 5km 가운데 현재 10%만 공개되고 있으나, 인접한 방문센터에서 동굴에 대한 지질 전시와 함께 보충된다. 투어 그룹은 개인 헤드셋을 통해 다국적 언어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산악 경관, 문화유산, 사막 체험을 함께 하는 패키지의 하나로

49) Felix Tongkul, “Geotourism in Malaysia : Mount Kinabalu, Sabah”, in Ross Dowling·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pp.113-123.

동굴 투어가 실시되고 있다. 동굴은 학교와 정부 차원의 환영행사에도 이용된다. 미래의 투어 가이드를 위한 훈련 학교의 학습 프로그램에는 동굴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⁵⁰⁾

2) 시사점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외의 주요 수범 사례를 통해 제주관광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을 배경으로 주제와 해설이 있는 트레일 코스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무생물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오투어리즘의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의 생물자원을 위주로 하는 생태관광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나아가 관광객들에게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에 대한 보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오투어리즘은 다른 어느 관광형태보다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대안관광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및 제주지역 생태관광의 경우 일부 지형 및 지질유산자원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생물자원과의 해설비율을 놓고 보면 지형 및 지질자원 해설은 극히 일부밖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⁵¹⁾

둘째, 지방정부와 대학, 지역주민과 NGO 등이 연계한 민·관·학 공동 네트워크 속에 국제박물관의 날, 지구의 날, 세계환경의 날 등을 축하하는 일련의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 이벤트들을 매년 새롭게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geo 상품’ 및 ‘geo 서비스’로 변신한 지역의 소규모 호텔,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등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체에는 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점은 제주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0) Andrew Lawrence, “Geotourism in the Sultanate of Oman”, in Ross Dowling·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pp.93-112.

51) 전영권,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2010, 53-69쪽.

4. 제주지역 Geotourism의 방향성

지금까지 제주관광의 추이와 문제점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부정적 사례와 함께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뜨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의 선행연구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수범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서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의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개발 방식을 기존의 대규모에서 소규모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제주의 해안지대와 중산간 일대는 휴양형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잠식당하고 있다. 삶의 공간을 희생당한 주민들은 개발추진과정과 소득 혜택에서 배제되고, 지역사회에는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가치 있는 지형과 지질유산 자원의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는 지오투어리즘은 새로운 틈새시장이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하는 개발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특성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틈새시장은 특별한 경험과 활동과 장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에 흥미를 갖게 한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다.⁵²⁾ 또한 지역 내 시설활용 차원에서 geo-restaurant, geo-bakery, geo-lodge 등 ‘geo 상품’과 ‘geo 서비스’를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개발 방식을 소규모로 채택하여 지역의 수용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의 정주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틈새관광으로서 지오투어리즘의 이념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⁵³⁾

둘째, 제주관광은 육지와 격절된 화산섬으로서의 고유성과 특이성, 자

52) Gorman, C.E., “Landscape and Geotourism : market typologies and visitors needs”, *European Tourism and Environment Conference : Promotion and Protection, Achieving the Balance*, Dublin, Ireland, 2007.

53) 김규호,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일신사, 2001, 125-155쪽.

연환경 회복 불가능성,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핵심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무한적인 관광객 수용방안에서 앞으로는 적정 규모의 관광객 수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관광은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위한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다. 이로 인해 생태관광 특히 한라산 탐방로, 중산간 숲길과 하천 탐방길, 제주올레길 등 제주도내 자연관광지 곳곳에는 탐방객들의 무차별적인 답압으로 토층 식생이 벗겨져 나가는 등의 환경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국제트레킹 코스의 일부 구간에서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편익과 부를 위하여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가치는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⁵⁴⁾ 자연의 모습과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과 동화된 관광경험을 즐길 수 있을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관광객 수용방안을 위한 대안적 모델은 제주관광의 최대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지형 및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는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지오투어리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지형 및 지질유산과 경관자원에 대한 해설수준과 관련 정보 인프라를 질적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해야한다. 해설안내판만 하더라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에는 지형 및 지질자원 해설안내판이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정상 등정에 나서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탐방객(또는 등반객)이 많아지고 있는 관음사 탐방로의 경우, 입구부터 백록담 동릉 정상까지 해설안내판이 22개 설치되어 있으나 지형 및 지질자원 분야 해설은 단 1개도 없다. 해설안내판 대부분은 식물과 동물 등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뿐이다. 성판악 코스, 어리목코스, 영실코스, 돈내코 코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실정이다. 무릇 우리가 사는 환경은 문화적 요소 못지않게 자연적 환경도 중요하다. 자연환경은

54) 최영국, 『환경용량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김성일·박석희 엮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2001, 95-123쪽.

식물과 동물 등 생물적 환경과 지형과 지질 등 비생물적 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해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우수한 해설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관광의 현 시스템으로는 전문가이드 확보가 어렵다. 제주도내 전문 가이드를 뽑으면 대부분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나마 활동 중인 전문가이드는 수적으로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주도와 도내 대학당국이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생 활용방안, 자연유산지역 주민교육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제주관광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는 기존의 대중관광 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에 부응하면서 기존의 대중관광이 야기한 많은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적 모델로서 지오투어리즘을 논의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 제주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이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섬 지코지 사유화 및 땅장사 논란, 책임질 사람 없는 TV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세트장 철거,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제주도 제1호 골프장 제주CC의 최종 부도, 20년 동안 평화로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일랜드호텔 건축공사장 문제를 짚었고 개발방식의 소규모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추진 논란, 세계자연유산 지역 주민 갈등조짐,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 피살사건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정책과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올레길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모색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사례로는 송악산 관광지구 환경 분쟁,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제주시 탐동매립과 추가 대규모 매

립추진 문제, 개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 관광객들의 답압으로 신음하는 한라산, 오름, 올레길의 환경파괴 문제를 짚어 보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중관광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대안으로 지오투어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오투어리즘이 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 선행연구와 함께 해외 지오투어리즘 개발 수범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제주에서의 지오투어리즘 즉,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을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지형 및 지질자원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해설과 감상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자연보전 마인드를 길러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등을 포함하는 지리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제주의 자연은 인문화된 자연이라는 고유성과 특이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국내 다른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추진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오투어리즘의 방향성과 관련해 관광개발 방식의 소규모로의 전환, 적정 규모의 관광객 수용력을 지향하는 대안적인 모듈 필요, 제주도내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에 대한 해설 강화와 전문해설가 양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세 가지 방향의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화산섬 제주의 가치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을 개발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와 영실 탐방로가 만나는 지점인 윗세오름 대피소~돈내코 탐방로 마지막 지점인 백록담 남벽 분기점까지 약 2.1km 코스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코스는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 정상 백록담의 서쪽과 남쪽 주위를 돌면서 제주도의 형성에서부터 백록담의 화산폭발 등에 이르기까지 화산섬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 및 지형자원의 특색을 자연해설을 통해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자연보전의 식도 높이는 탐방프로그램이다.

둘째, 지역의 가치 있는 오름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 자원을 융합 개발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영주산~성읍민속마을~천미천~구실잣밤나무 도로 걷기구간(제주~표선 간 번영로 확장포장 사업으로 멸실될 위기에 처했던 성읍리~표선리 구간 구실잣밤나무 가로수를 설계변경을 통해 도로 중앙의 인도 양쪽에 보존케 함으로써 지역명물로 탄생한 거리임)~표선리 해안 4·3 학살터~표선 해비치 해변에 이르는 코스를 들 수 있다.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오름에서 해안가 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융합 프로그램인 이 코스는 제주만의 고유성과 특이성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geo 상품’을 알리고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섬 속의 섬’의 어메니티(amenity) 제고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코스를 제안한다. 비양도를 일주하고 섬 속의 최고봉인 비양봉을 만나면서 비양도의 지질 및 지형을 비롯하여 역사와 민속 문화, 주민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비양도의 지리적 특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섬 속의 섬으로서의 쾌적함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비양도 출입을 수용력 차원에서 관리하고 해설 안내와 지역특산품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관광의 대안적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뜨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을 제주형 지오투어리즘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새로운 연구 분야로 제안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지오투어리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geo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개발을 위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다방면의 통계자료 제시와 함께 지오투어리즘 선진지의 다양한 상품 개발 사례조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희,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 및 성공모델」, 『2007년 한국 문화관광연UNWTO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국제회의 자료집』, 2007.
- 강미희·박찬우·이영주·김성일, 「제주도를 방문한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여행 특성」, 『한국임학회지』, 95(6), 2006.
- 고계성,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와 전략」, 『2013년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13.
- 공우석, 『한국의 자연지리-생물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권상철, 「제주도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 『자연보존』 114, 2001.
- 김규호,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일신사, 2001.
- 김대관·김동렬,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광의 역사적 흐름」,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일신사, 2001.
- 김범훈,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2013.
- 김철원,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전략 모색」, 『2013년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13.
- 박민영·박경,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012.
- 변형석, 「지속가능한 관광과 사회적 기업」, 『한국관광정책』 41, 2010.
- 신동일·정지형, 『중국의 여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167, 2013.
- 오상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오상훈·강성일, 「제주지역 펜션사업자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식과 수용」, 『관광학연구』 29(1), 2005.
- 오정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생태 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희연·차승훈, 「관광지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의 적용과 평가 시스템 구축」, 『2004년 한국관광학회 제55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전영권,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

- 학회지』 11(6), 2005.
- 전영권,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2010.
- 정강환,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000.
- 정원옥·정평희,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의 물리적 특성 및 훼손유형』, 『국립공원연구지』 1(4), 2010.
- 최영국,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 223, 2000.
- _____, 『환경용량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김성일·박석희 엮음, 일신사, 2001.
- 황경수·고태호,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제주도 송악산 관광 지구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8(3), 2004.
- Andrew Lawrence, “Geotourism in the Sultanate of Oman”, in Ross Dowling and 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 Butler,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ards in order to progress?” in C, Michael Hall and Alan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1998.
- Dowling, R,K.,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 2011.
- Dowling, R,K.·Newsome, D., “Geotourism : a Global Activity”, in Dowling, R,K. and Newsome,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2010.
- Dowling, R, K.·Newsome, D., “The future of geotourism : where to from here”, in Newsome, D and Dowling, R, K(eds), *Geotourism-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UK, 2010.
- Farsani, N,T.·Coelho, C.·Costa, C.·Carvalho, C,N., *Geoparks & Geotourism : new approaches to sustainability for the 21st century*, 2012.
- Felix Tongkul, “Geotourism in Malaysia : Mount Kinabalu, Sabah”, in Ross Dowling and 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 Gorman, C,E., “Landscape and Geotourism : market typologies and visitors needs”, *European Tourism and Environment Conference : Promotion and Protection, Achieving the Balance*, Dublin, Ireland, 2007.

- Hall, C, Michael·Alan A, Lew, “The Geography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an Introduction” in C, Michael Hall and Alan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London, 1998.
- Hose, T,A,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s ston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May, 1995.
- Mamoon Allan, *Geotourism-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Motivation For A Geotourism Experience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rmany, 2012.
- National Geographic 홈페이지(www.nationalgeographic.com).
- Nickolas C. Zouros, “Geotourism in Greece : A case study of the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in Ross Dowling and 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 Ollier, C., “Problems of Geotourism and Geodiversity”, *QUAESTIONES GEOGRAPHICAE* 31(3), 2012.
- Patrick Maher, “The Geology of Ireland : providing a catalys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Ross Dowling and David Newsome(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Ltd, UK, 2010.
- Wight, P., “Tool for sustainable analysis in planning and managing tourism and recreation in the destination”, in C,M, Hall and A,A, Lews(eds), *Sustainable Tourism of a Geographical Perspective*, Prentice Hall, 1998.
- WTO,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Guide for Local Planners*, Madrid, Spain : WTO, 1993.
- 구글 지도(<http://map.google.com>).
- 네이버 사전(<http://krdic.naver.com>).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연합뉴스 2031년 3월 18일자.
- 제민일보 2013년 3월 1일자.
- 제주의소리 2012년 2월 8일자.
- 제주일보 2013년 8월 4일자.
- 조선일보 2012년 5월 31일자.

Abstract

Sustainability of Tourism and Geotourism as an Alternative Tourism Model in Jeju Island

Kim, Beom-Hoon*

About 10 million tourists have been visiting Jeju Island. However, there is still a certain negative discourse on tourism development weighted in favour of conventional mass tourism in Jeju.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ustainable tourism that can minimize negative impacts resulted by established mass tourism responding to various tastes of tourists. The author analyzed negative cases from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al aspects to find out sustainable tourism methods for Jeju Island. And Geotourism as an alternative model is discussed. By recognition on geotourism in Jeju Island, that is, Jeju geotourism, through interpretation and appreciation about universal outstanding values of geomorphological and geological resources in Jeju Volcanic Island, nature conservation mindset is cultivated. And by strengthening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local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s, tourist satisfaction as well as quality of life for local people and communities are able to be improved. Shift to small scale tourism development, pursuance of appropriate capacity, strengthening qualitative interpretation on geomorphological and geological resources are suggested for Jeju geotourism. Moreover, 3

*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plans for available and practical geotourism programs in Jeju are proposed. This study is helpful to offer baseline data on geotourism that increases sustainability in tourism as an alternative tourism model for Jeju Island.

Key Words : sustainable tourism, economic sustainability, soci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eotourism.

교신 : 김범훈 690-121 제주시 아라1동 원신아파트 105동 503호
(E-mail : kimbh0307@hanmail.net)
핸드폰 : 010-3639-0678

논문투고일 2013. 08. 30.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